



국내 투자·협력업체 물색차 방한

하이테크 바탕 제3국 진출 모색

Dr. Bernhard Vogel / 독일 튀링겐주 수상

“제 난달 19일부터 21일까지 COEX Intercontinental 호텔에서는 독일 튀링겐주에 소재한 25개의 첨단 기업들이 한국기업들의 투자 및 거래를 위해 최신 기술 박람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튀링겐주 수상인 Dr. Bernhard Vogel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한 산학협동이 이루어집니다. 예전에 jena대학의 기계기술자 Carl Zeiss와 화학자 Ernst Abbe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광학산업 분야의 기업을 설립 한 이 지역에서는 하이테크 및 개혁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튀링겐의 활발한 경제활동은 이 지역을 국제적으로 매력적인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Q. 방한의 목적은?

A. 지난 한세기 동안 산업화의 저울이었고 세계적인 하이테크놀로지 산업의 출생지인 튀링겐주에 소재해 있는 기업들을 소개하고 한국의 투자업체나 협력업체를 찾기위서입니다.

Q. 튀링겐주의 산업에 대해 말씀해 주시지요

A. 튀링겐은 독일 및 유럽의 중앙에 위치한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음악의 아버지 바흐와 독일의 대문호 과테 및 셀러의 고장이며,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문화도시가 많은 지역입니다.

튀링겐주에는 대학, 연구소 및 기업간 활발

Q. 튀링겐과 한국 기업과의 협력분야는?

A. 튀링겐과 한국은 분단이라는 아픔을 겪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려운 역경을 딛고 세계적인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두 지역의 성공비결은 전통과 현대기술의 적절한 조화입니다. 두 지역 모두 하이테크 영역에서 좋은 성과를 얻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우선은 수출과 투자, 한독기업간 파트너와 제3국가로 진출하는 계획을 갖고 있으며, 생명공학과 자동차산업의 세계화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Q 국내기업들과의 관계는

A. 튜링겐은 생물공학, 유전공학, 정보학, 마이크로 전자공학, 광학, 의료공학 및 레이저 공학 등과 같은 독일 하이테크산업의 중심지입니다. 현재 30개 이상의 튜링겐주 업체들이 한국 회사와 사업을 하고 있거나 한국에 지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의 규모는 약 2,000만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럽연합국가 중에서 독일은 한국의 첫 번째 경제협력 파트너입니다. 독일과 한국은 예로부터 탄탄한 경제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러한 양국 관계는 2000년에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에서 독일 제품은 품질이 좋고 진보적이며 믿을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는 튜링겐 기업들의 한국 시장 진출에 유리한 전제조건입니다.

Q 한국경제에 대한 미래는

A. 한국은 독일 기업의 무역거래 확장을 위한 좋은 기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997년 한국을 강타한 IMF 경제위기는 극복되었습니다.

한국정부 및 국민들은 이 위기를 경제정책의 도전으로 받아들였으며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였습니다. 한국 경제는 광범위한 구조개혁 및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 안정된 기반을 바탕으로 2000년에도 약 8%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Q 이번 방한의 성과가 있다면

A. 우선 Eisenach의 Fahrzeugelektrik가 한국의 대영기업과 협작에 서명하였고 성일과도 부품을 납품하기로 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박람회가 끝나고 이번 참가업체들과의 협작이나 투자, 거래에 관심이 많은 업체들과의 협력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Q 전시회 이외 일정은

A. 국무총리 및 통일부 장관 등과 만나는 일입니다. 우리 독일은 수년에 걸쳐서 조국의 통일을 기원하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오랜 분단의 아픔을 경험한 두 국가의 공통점이 독일과 한국간의 긴밀한 국가협력에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의 예를 들어 한국이 통일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경험을 조언해 줄 수 있습니다.

Q 한국의 통일에 대한 관점은

A. 한국은 반드시 통일되어야 합니다. 최근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는 동서독 정상이 30년 전 튜링겐에서 처음 만났을 때와는 상황이 다릅니다.

아마도 독일의 통일보다는 빠르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앞으로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처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ko]